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 개최 결과



협회는 지난 12월 16일, 17일 양일간 대전유성(레전드호텔)에서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우수목장 시상식'을 겸한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첫번째 순서로 전국 낙농육우인 지도자 결의대회(낭독 : 정해정 전남도지회 사무국장)를 갖고, 낙농육우 산업 회생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요구사항으로는 전국단위 쿼터제 실현을 위한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포함, 낙농육우 현안에 대한 4개항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FTA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한남대학교 강명희 교수(한국영양학회 회장)로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유 및 유제품 섭취와 신체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용역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강명희 교수는 연구분석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우유칼슘 당량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영양소 섭취량, 신체성장점수, 골밀도상태가 우수하며 우유

현장스케치 3 _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 개최 결과



▲ 'FTA와 낙농제도 개혁과제'란 주제로 낙농특강을 강의한 영남대 조석진 교수



▲ 농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의 간담회 중 질의장면

칼슘 당량과 비만도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우유, 유제품 섭취가 식사의 질, 신체성장 및 골밀도 축적을 향상시켜 주면서 비만은 유발시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소년 대상으로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으로 우유, 유제품 섭취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낙농특강은 영남대 조석진 교수가 'FTA와 낙농제도 개혁과제'란 주제로 강의의 시간을 가졌다. 조석진 교수는 전세계 낙농선진국에서는 원유거래에 있어 생산자에 불평등한 거래교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협동조합을 통한 일원직유 다원판매와 쿼터제를 통한 계획생산을 실시하였다고 밝히며, 쿼터제와 관련해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확고한 국경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내 낙농제도 개혁을 위한 과제로 첫째 농식품부가 제시한 전국(연합)쿼터제(안)이 단일쿼터제로의 이행 보장 여부, 둘째로 재정부담을 포함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혁에 대한 정책의지의 문제, 셋째 FTA가 발효될 경우 전개될 수 있는 시장상황에 대한 낙농산업 구성원들의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재 3분된 집유체제 하에서 강제적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방식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개혁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쿼터관리 등 원유생산 대책과 관련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산자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으며, 현 농식품부의 중앙낙농기구(안)을 보면 생산자, 유업체, 정부,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주체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연이어 농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과 낙농육우 지도자간 간담회 시간이 이어졌다.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전국(연합)쿼터제, 가공원료유 지원 등 정부의 FTA 낙농대책(안)을 설명하면서 정부정책의 대농가 홍보와 이해가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농가의견을 이해하고 수렴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정부(안)을 설득하려고만 한다며 격렬히 반발하였다. 아울러 FTA 피해자는 농민들인데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유업체 중심의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거래



▲ 2009 우수목장 선정 목장주들 및 선정위원 기념촬영

교섭력 확보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요구하는 농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 낙농가와 낙농산업을 위한 열린 자세로 정책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2006년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와 생산자위원회 설치 등 농림부와 협의사항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금번 지도자대회와 전국순회 낙농인대토론회에서 수렴된 낙농육우 농가들의 의견을 검토, 낙농제도 개선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회활동에 반영하여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지도자대회에서는 2009년도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우수목장 시상식이 개최되었으며, 대상을 받은 청신목장 김철수 대표(경북상주)를 포함, 12개소의 우수목장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목장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대상(농식품부장관상) : 청신목장 김철수 대표(경북상주)
- 최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 : 어농목장 박경양 대표(경기이천), 다래목장 이종윤 대표(충북청원)
- 우수상(협회장상) : 영초목장 안익근 대표(경기포천), 오투기목장 김유현(경기화성), 진영목장 오세석 대표(충남서천), 아곰목장 선종승 대표(전남함평)
- 장려상(협회장상) : 어론목장 장인학 대표(강원홍천), 우림목장 김영진 대표(전북고창), 청해목장 이 림 대표(전남영암), 성주봉목장 박헌기 대표(경북상주), 죽전목장 공정규 대표(경남의령) ⊕

낙농육우산업 회생대책을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잇따른 낙농강대국과의 FTA는 우리 낙농육우 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도 FTA 파고는 넘으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 낙농산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농인들이 살아남아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FTA 대책은 첫째도, 둘째도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이는 FTA하에서 전개될 낙농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불안한 낙농미래로 인해 평생 생업으로 여긴 낙농업을 등지는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FTA 발효시 수입유제품이 물밀 듯이 넘쳐난다면, 농가 쿼터감축, 소득감소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로 이 땅에 한국낙농은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분명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있게 지금까지 제시한 FTA 낙농대책으로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말하는 대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현 유업체 중심의 불합리한 집유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또 정부가 표면적인 목표로 하는 전국쿼터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나 설명이 있어야 옳다. 구체성 없는 대책만을 내세워, FTA하에 전개될 시장의 대혼란을 단지 기우라고 치부하는 것은 정책대상자인 농가를 위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 낙농육우인들은 '제도개혁' 이 아니라 '제도개혁' 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농민의 의견을 격하하거나 무시하는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정부가 목표하는 전국 쿼터제를 실현코자 한다면 생산자위원회 설치와 협동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FTA 발효이후 더욱 취약해지는 국경보호조치하에서 계획생산량을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제시해야한다. 그것은 낙농정책의 중요한 지표이자, 낙농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낙농강대국들이 유구한 세월동안 견고히 다져온 정책수단임을 왜 모르는가.

오늘 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전국 낙농육우인 지도자들은 지난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에서 수립된 전국 농가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FTA 낙농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을 계기로 정부는 닫힌 눈과 귀를 열고, 앞을 내다보는 낙농제도 개혁의 해안을 가져 생산자를 위한 FTA 대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진정으로 기대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 하나, 전국단위 쿼터제 실현을 위한 생산자 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하라!
- 하나, 정부는 낙농강대국과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감소(쿼터삭감) 대책을 사전대책으로 반드시 수립하라!
- 하나, 정부는 우리 우유 소비확대와 기반유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 하나, 정부는 육우를 국내 소고기 지원으로 인정하고 근본적인 육우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라!

2009. 12. 16

전국 낙농육우인 지도자 일동